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형 대표

삶의 품위에 대하여

인문학의 가치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것에 있다. 인간다운 삶이란 특별하거나 유별난 것이 아니다. 품위 있는 삶이 인간다운 삶이다. 당장의 생활에 정신없이 끌려다니다가도 어느 지점에 이르르면 지나온 시간의 의미와 맛닥뜨린다. 그러면서 많아지는 생각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품위 있는 삶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다. 어떤 삶을 살고자 하며 그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사유하고 성찰하는 것이 품위의 첫걸음이다.

하지만 성장만으로 품위 있는 삶이 완성될 수는 없다. 성찰의 결과를 실천에 옮기는 방식에 따라서 삶의 품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품위는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실현하느냐의 문제다. 그저 일상의 삶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의미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인문학에 관여하는 방식은 별로 다르지 않다. 단순히 자리를 하나 차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삶도 인문학도 충분하지 않다.

품위 있는 삶에 대해서 가장 위대한 작가 중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러시아의 작가 레오 톨스토이(1828-1910)만큼 고

민한 사람도 드물다.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에서 "우리 삶의 목적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품위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생각을 톨스토이는 귀족 출신으로 러시아 최상류층에 속하기는 하지만 자신이 가졌던 모든 특권을 빼앗기고 30여 년의 유형 생활을 견딘 볼콘스키 공작이라는 노인을 통해서 말한다. 공작은 절대 군주 차르 시대에 농노 해방을 주장하고 입헌 국가를 주장한 죄로 모든 것을 박탈당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이 오히려 공작의 품위를 아무도 빼앗거나 손상할 수 없게 만들었다. 공작이 말하는 삶의 품위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결단과 용기에서 나오는 내면의 힘이 때문이다. 볼콘스키 공작은 톨스토이의 외증조부를 모델로 한 인물이다. 그런 영향 때문일까? 톨스토이 또한 평생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삶의 목적을 고민했다. 그리고 잘 알려진 것처럼 모든 소유를 세상에 환원하는 삶을 선택했다. 삶을 사랑하며 성장하는 삶, 성숙한 삶을 사는 것이 삶의 품위라는 믿음에서 나온 선택이었다.

한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의 죽음을 보는 것이다. 2년 만에

러시아의 톨스토이 묘를 다시 찾았다. 이 무덤보다 톨스토이의 삶을 잘 보여 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 흔한 비석 하나 세우지 않고 자신의 이름도 남기지 않은 채, 마른 나뭇가지로 돌레를 친 작은 무덤이 전부다. 길을 묻듯이 어쩌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삶의 품위가 어떤 것인가를 말해 주는 듯하다.

톨스토이는 세상에 흔한 '지식 자판기'가 되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독하게 애를 썼다. 지식보다는 삶 자체를 사랑하는 농부의 삶을 살고자 소망한 탓이다. 그의 마지막 말 또한 '농부들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였다. 세상의 역사를 만드는 주체는 위대한 몇 사람이 아니고 이름 없는 보통 사람들이라는 평소의 믿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품위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나갈 길을 고민할 때 비취지는 내면의 빛이다. 자신의 길을 가는 의지와 믿음을 지켜 내는 힘이다. 최근 불교 있는 인문학 열풍 역시 이러한 '품위 있는 삶에 대한 갈망' 때문일 것이라 믿고 싶다.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법조칼럼



김상훈  
변호사

휴가 독서

명당 노령연금 수급자 16.8명이 2088년에는 118.6명까지 증가될 것이라고.

재정계산위원회 자료란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소득대체율 45% 인상 여부에 따라 '당장 더 내고 더 받거나(45% 인상안), 천천히 더 내고 그대로 받는(40% 유지안)' 방식으로 정리된다. 어느 안이든 가입자 입장에선 오늘 연금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일 수급액을 올리지 않는 결과다. 그래서 연금의 문제는 현재대의 후세대에 대한 재정 약속이자 예산 제시라 할 만하다.

연젠가부터 미투(Me too), 쿼어(queer), 젠더(gender), 워마드(Womad), 미러링(여성 혐오를 그대로 남성에게 반사하여 적용) 등 용어와 현상을 자주 듣고 접하게 된다. 이들 현상을 정확히 규정하고 분석할 능력이 필자에겐 없으나, 권력의 문제, 남녀의 문제, 소수자 문제가 다층적으로 겹쳐 있는 것 같기는 하다. 아무튼 미투 운동, 쿼어 축제, 워마드 집회, 메갈리아(Megalial) 사이트와 같이 위 입장에 입각한 확고한 주장과 일정한 반향이 있는 이상, 이 또한 좋은 선택은 우리 세대의 문제도 현주소다.

이번 여름 휴가지에서 상당한 독서를 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꽤나 정독을 하였는데, 사정은 이렇다. 휴가지 날씨가 내내 엉망이었다.

3남매 주장이 언제나처럼 제각각인데다, 이제는 쉽게 타협이 어려울 만큼 각 주장의 강도도 세졌다.

특히 사춘기 큰아들의 '뒤편 하지 않겠다'는 식의 어깃장이 결정적이었다. 더구나 관절염으로 이동이 쉽지 않은 어머니까지 고려해야 했기에, 애초 세운 계획을 별로 이루지 못했다.

부친 생전 격일 병원 투석을 이유로, 어머니마저 함께 종재 가족 여행을 못해 왔기에 이번에는 멋진 추억을 남기고 싶었는데, 번덕스런 날씨처럼 쉽지 않은 휴가였다. 그나마 새벽에 혼자 하는 산책이나 드라이브는 나쁘지 않았고, 계획이 틀어져 속소로 돌아왔을 때 읽을 수 있는 책이 있어 다행이었다. 그 독서거리 중에 김혜진 작가의 '말에 대하여'도 있었다.

이야기의 기본 구조는 어머니 내가 딸(그린)과 동성 연인(레인)의 관계를 가족으로서, 어머니로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있다.

대학이 동성애 강의를 이유로 강사를 해임하자 그에 대하여 벌이는 극렬한 찬반 시위 현상이야말로 그 확장판 상영구도라 할 만하다.

앞서 본 젠더(gender)의 문제라 할 수 있겠다. 또 요양 보호사로 일하는 내전담 치매 환자(젠)를 이운 누리, 자본 누리로 처리하여 결국 폐기하는 주류 세

력(병원) 및 이에 추종할 수밖에 없는 시민(교수부인, 새댁)의 구조도 있다.

엄마 입장에서 시간 강사인 딸은 스스로 경제적 자립에 실패한 후대의 경제 단위에 불과하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프리틀물과 책을 넣은 돌덩이 같은 가방을 메고 하루 종일 전국을 떠돌아다녀야 하는 보따리 강사'가 소설 속 엄마의 딸에 대한 규정이다.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사회에서, 현세대가 후세대를 보는 미덥지 않은 격정을 보는 듯하다.

앞서 본 동시대의 이익 갈등, 전세대(젠)-현세대(나)-후세대(딸) 부양 위탁의 문제다. 지금 현세대(병원)가 전세대(젠)를 소홀히 내팽개치듯, 나중에 후세대(딸)도 현세대(나)를 제대로 부양하고 평가해 줄 것 같지 않다. 작가 김혜진으로부터 이런 의미를 읽었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소설의 처음으로 돌아가 주인공 상황을 떠올려 본다. 갑자기 자식이 동성 연인을 본인의 진지한 선택이자 존재의 문제라고 한다던. 이 문제에 아무 준비와 대책이 없는 내게 그런 당혹스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가상(假想)의 격정과 바람이다. 그러나 현재 진정 급하고 현실적 소망이라면, 큰아들의 사춘기가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란다.

형평 부과 실현하는 건강 보험료 개편

분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8년 7월,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은 사회적 각성과 책임으로 그 첫발을 내딛었다. 2022년까지 진행되는 부과 체계 개편 1단계는 '소득이 낮은 자는 보험료를 낮추고, 소득이 높은 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는 기본에 충실한 원칙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번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1단계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 비중을 확대하고, 생계형 자동차의 부과 점수를 제외하는 등 저소득 지역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데 중점을 두었다. 뿐만 아니라 종합 소득 3400만 원 초과자와 같은 고소득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월급 외 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건강 보험료 형평성 부과에 힘을 쏟았다.

우리가 '소득 중심의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의 시작을 알린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리고 개편된 부과 체계에 근거한 첫 건강 보험료 고지서가 국민들 손에 쥐어졌다. 지역 가입자의 77%인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만 2000원 낮아졌다. 기존보다 월 평균 2만 원 이상을 덜 내는 셈이며, 연간 26만 원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소득 상위 1% 직장인 등 8만 가구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안 내던 보험료를 내게 된다.

현재 광주·전남 지역은 피부양자 탈락에 따른 신규 부과 대상자가 약 2만 명으로 추산되며, 특히 연금 소득 수형으로 지역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가 약 1만 2000명으로 파악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민원 응대를 위해 상황별 단계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실정을 반영한 신속 민원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였다.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 체계 시행을 앞두고 줄었던 마음은 기우였을까. "버는

것도 얼마 안되는 데 상대적으로 보험료만 더 많이 낸다"며 형평에 어긋난다는 저소득층의 목소리가 반영된 깎담인지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은 순항하고 있다. 보험료 인상이 과도하다며 항의하는 목소리도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는 합리적 개편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과 동의를 이끌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부과 체계 개편은 4년 후 2022년 7월 제2차 개편으로 이어달리게 된다. 긴 여정에 지치지 않고 가는 것은 함께 가는 것이다.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의 성공은 국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되 서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국민들 속 속에 안착하는 것이 아닐까. 국민을 위한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는 국민의 요구와 함께 가야 할 것이다.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의 순항이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겠지만 송파 세 모녀에게 1만 3100원으로 줄어든 고지서를 전할 수 없음이 안타깝다.

社說

이해찬 대표 당선과 고흥 출신 송영길의 선전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에 이해찬 의원이 이번 없이 선출됐다. 이 대표는 7선 국회의원에 국무총리를 지낸 데다, 노무현·문재인 두 명의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입당공신 역할을 한 명실상부한 정치전문가다. 이 대표는 대표 수락 연설에서 "철통같은 단결로 문재인 정부를 지키자"고 강조했다.

이 같은 그의 말처럼 우선 그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당내 통합이다. 민주당은 이번 경선 과정에서 각종 네거티브가 횡행하면서, 각 캠프와 지지세력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 후보 측에서 지적한 이 대표의 소통 부족과 독선적인 당 운영에 대한 우려도 새겨 들어야 한다. 보다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설득하는 자세로 당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 많다.

여기에 각종 민생-경제 입법 처리를 위한 야권과의 협지도 이 대표가 당면한 숙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이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막혀 있어 야 협치가 그 어느 때부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최고 수준의 협치를 추진하겠다"며 "주제와 형식에 상관없이 5당 대표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제안하기

도 했는데,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민생을 돌보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대표의 당선과 함께 이번 선거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 지역 고흥 출신 송영길 의원의 선전이다. 3선 국회의원으로 인천시장을 지내기도 한 송 의원은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김진표 후보를 따돌리고 2위를 차지했다. '세대교체론'을 일관되게 주장한 그는 유일한 50대 후보로서 이미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지낸 이해찬-김진표 후보보다 젊고 역동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호응을 얻었다. 다만 송 의원이 당선될 경우 다음 대선 출마를 노리고 자기 정지에 몰두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광주 대동고를 나와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지내기도 한 그는 이번 선거의 선전으로 다시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게 됐다. 광주상고 출신으로 문화방송 앵커를 지낸 재선의 박광은 의원에 이번 최고위원에 진급했다. 이들 두 사람이 앞으로 호남의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를 고대한다.

태풍 피해 복구와 함께 집중 호우에도 대비를

태풍 '솔릭'이 지나가면서 전남 곳곳에 적지 않은 생채기를 남겼다. 수확을 앞둔 농경지 침수와 낙과, 가두리 양식장 파손 등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폭우마저 쏟아지면서 복구 작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솔릭이 지나간 이후 현장 확인 결과 농경지 270ha가 침수되고 58ha의 논에서는 벼가 강풍에 쓰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 낙안읍 배농장 등 과수원 246ha에서는 낙과 피해가 발생했다.

태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완도에서는 전북 등 가두리 양식장 5ha가 파손되고 진도 등 서남해안 양식장에서도 가두리 시설이 파도와 바람에 유실됐다. 아직 바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양식 어패류 폐사량 집계는 임무를 내지 못하고 있

다. 도로와 등대, 가로수 등 시설물 파손 신고도 366건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부터 전남 동부권 곳곳에는 시간당 40~50mm가 넘는 큰비가 내려 하천이 범람하고 주택이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순천시 우암면 복다리 용출천이 폭우로 넘치면서 10여 가구가 침수됐고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폭우가 쏟아지면 지반이 약해져 축대 붕괴나 산사태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지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전남도와 시·군은 피해 상황을 조기에 파악해 신속한 응급 복구 지원에 나서는 한편 피해 농민과 이재민에 대한 맞춤형 구호와 공공시설의 조기 복구로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일본 소설 중에는 몽롱한 환상의 안개가 서린 작품이 적지 않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 환상은 대부분 '뒤틀린 시공간'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보인다.

'평행우주'나 '초공간이론'에 열광하는 SF마니아에게는 익숙한 것인데, 이들 작품에서 다루는 시공간은 '지나간 과거, 지금의 현재, 다가올 미래'라는 상식과는 전혀 다르다. 뒤틀린 시공간은 '우주 어딘가에 분명 존재하지만 일반인은 인식할 수 없는' 그런 곳이다.

시공간 비틀기

유명한 무라카미하루키의 소설에 단골로 등장하는 '양사나이'가 출몰하는 곳이나 '1Q84', '기사단장 죽이기' 등의 작품에 나오는 시공간은 현실과 겹치거나 유리된 또 다른 어떤 곳이다. 환상 소설의 대가 쓰루네카와 고타로가 최근 '야시'나 '천둥의 계절'도 그렇고,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끈 하가시노 게이코의 대표작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역시 뒤틀린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소설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대다수 소설에서는 '공간이 꿈틀' '무언가 출렁이는 것처럼' '흐릿해지며' 등의 표현을 통해 순식간에 현실에서 또 다른 시공간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그 시공

간은, 보이진 않지만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한 가닥 끈으로 현실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 바로 이 점이 일반 공상 과학 소설(SF)과 구분되는 결정적 차이라고 해도 될 것 같다.

상당수 일본 소설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실의 끝을 넘어 다른 세계로 다가서려는' 작가들의 경향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라는 일본의 지리적 특징에서 일부 비롯된 것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다. '섬이라는 경계를 넘어 미지의 세상으로 떠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섬에 갇혀 있어야 했던' 옛 조상의 유전자를 이어 받은 후손들이 '땅과 육체라는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려고' 치열하게 노력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차별화'는 한계를 깨뜨리려는 노력에서 비롯되고 결국엔 '세계화'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일본 작가들에게 새겨진 유전자는 일본 문학의 차별화와 세계화에 기여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우리 문화도 이미 세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우리만의 것'에 더 표현을 통해 순식간에 현실에서 또 다른 시공간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그 시공

/홍행철 정치부장·부국장 redplane@